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통계정보보고서

2023. 11.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03.05.

〈차 례〉

I. 통계개요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4
III. 통계설계	7
IV. 자료수집	20
V. 통계처리 및 분석	24
V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27
VII. 통계기반 및 개선	35
VIII. 참고문헌	36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상장기업 부가가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계명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2. 법적근거

-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에 의거 작성
 - 승인번호 : 제344002호(1979년 9월 19일), 일반·가공통계

3. 통계작성방법

- 가공통계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분배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산출함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연구소

5. 공표주기

- 매년(11월말)

6. 통계작성과정 개관

작성과정 개관

- NICE평가정보(주)의 『KIS-DATA』를 기초자료로 사용
 - 매년 5월말(기업 재무제표) 및 8월말(부가가치관련 자료) 기초자료 수집
 - 자료 오류 검증 및 보완작업 실시
-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41종 분석지표 산출
 - 기업별 및 산업(업종)별 지표 작성

○ 통계 작성결과 공표

- 통계결과는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말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통계DB(KOSIS),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DB에 수록

7. 통계연혁

□ 개발배경 및 최초 개발 시기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한국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분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개별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기존의 산업별(대분류) 생산성 지표는 거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업 단위에서 생산성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1978년에 최초 개발되고 1979년부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로서 매년 작성되고 있음

□ 연혁

- 통계 보고서는 '78-'79년 기간에는 「부가가치 분석」 '81-'84년 기간에는 「한국기업의 경영지표」, '85-'90년 기간에는 「한국기업의 부가가치 분석」의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92년 이후부터 현재의 보고서명(「상장기업의 부가가치 분석」)을 사용하고 있음
-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조사대상을 상장기업에서 등록법인으로 확대하여 상장기업과 등록법인 편으로 각각 발간
- 1992년 이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만을 조사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
- 2011년 조사 시 부가적으로 수행한 생산성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포함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체 통계지표 작성 대상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상장기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음

시 기	변경이력
1978	- 통계명 「부가가치 분석」으로 최초 작성 및 발표
1979. 9	- 통계청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34402호)
1981~84	- 통계명 「한국기업의 경영지표」로 변경 발표
1985~90	- 통계명 「한국기업의 부가가치분석」으로 변경 발표 - 조사대상을 상장기업에서 등록법인으로 확대
1991	- 휴간
1992~2010	- 조사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한정 - 통계명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으로 변경 발표
2011	- 일시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포함
2012~현재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포함한 전체 상장기업으로 조사 대상 확대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작성목적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개별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작성에 목적이 있음

□ 주된 활용분야

- 개별 기업의 경영관리부서에서 생산성 등 기업 성과의 측정 및 목표설정, 경쟁사 현황 파악 등에 활용
- 경영컨설턴트의 동종 산업 기업의 생산성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상장기업 생산성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업종별 단체, 협회 등에서 해당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 현황 파악자료로 활용

□ 국내 유사통계와의 비교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한국생산성본부)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조사대상	상장기업 (일부업종 제외)	전체 영리법인 (일부업종 제외)
기초 재무자료	개별기업 공시 재무제표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 (표준재무제표)
생산성(1인당) 지표 작성 여부	작성	비작성 (2011년부터 편제중단)
지표작성 수준	산업(대분류, 중분류(제조업)) 및 개별기업	산업 (표준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개별기업경영지원부서) 동종기업 경쟁기업 분석, 기업 내 생산성 성과 분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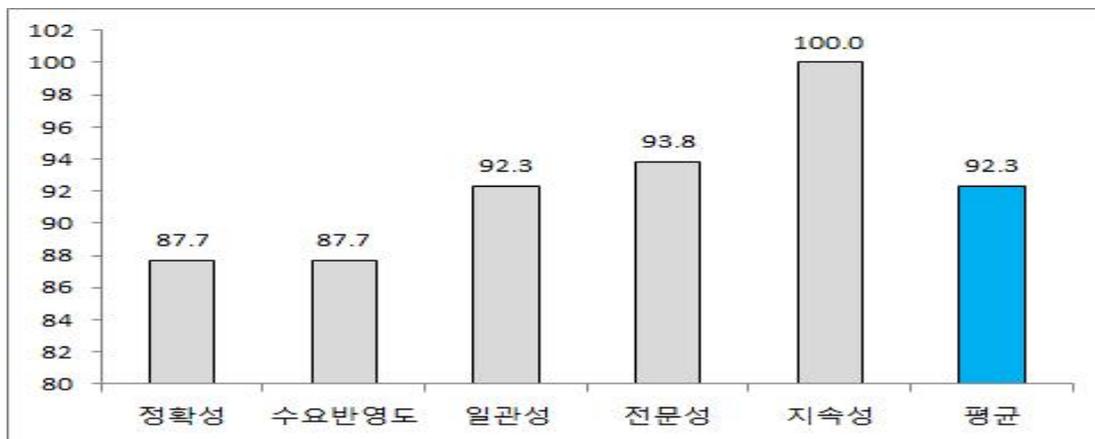
- (연구자) 상장기업 부문 전반의 생산성 연구
- (컨설턴트) 컨설팅 대상 기업의 벤치마킹 지표로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조사기간 : 2015. 4.17 ~ 6.30
- 조사대상 : 생산성통계자문위원회 (국내 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자 등 19명)
- 조사방법 : 설문지 배부(자기기입식)
- 조사항목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을 포함하는 6종의 생산성 통계에 대한 만족도
 - 통계 개선의견
- 조사결과
 -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연구(통계)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13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고, 생산성연구와 통계에 대한 전체 전문가 평가점수는 92.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개별항목) 생산성 연구 통계의 지속성관련 평가 항목에서 100점에 이어 전문성관련 평가에서는 93.8 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속성 > 전문성 > 일관성 > 수요반영도 > 정확성의 순

개별 문항 평가 평균점수



- 개선의견 제안사례

- 생산성 통계의 포괄범위와 내용 등은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되기를 기대함
- 총요소생산성 산출시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 공식 자본스톡 통계와 어떻게 정합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함

Ⅲ. 통계설계

1.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 항목 포괄범위 및 기준시점

- (작성항목)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에서 작성하는 통계지표는 크게 ①부가가치 창출 지표, ②부가가치 분배 지표, ③성장성 지표, ④수익성 지표, ⑤비용관련지표, ⑥안정성 지표, ⑦활동성 지표, ⑧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 당 세부지표 4~9개로 구성
- (포괄범위)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통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과 재무자료의 시계열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제외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관리대상 기업, ②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기업, ③ 비금융지주회사, ④ 통계작성연도 기준 3년 이내 신규로 상장된 기업, ⑤ 인수합병·사업분할 등으로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결산월 변경 등으로 인해 재무자료의 시계열 비교가 무의미한 기업, ⑥ 신규 설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최근 4개년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
 - 2024년 기준 통계의 경우 1,861개 상장기업(유가증권 625개, 코스닥 1,236개)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

산업구분	기업수			
	전 체	유가증권	코스닥	
전(全)산업	1,861	(100.0)	625	1,236
A. 농업, 임업 및 어업	5	(0.3)	3	2
B. 광업	0	(0.0)	0	0
C. 제조업	1,289	(69.3)	449	84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	(0.7)	10	3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0.1)	0	2
F. 건설업	49	(326)	25	24
G. 도매 및 소매업	151	(8.1)	60	91
H. 운수업	29	(1.6)	24	5
I. 숙박 및 음식점업	5	(0.3)	2	3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7	(11.7)	32	18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3.9)	10	6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0.7)	4	9
P. 교육 서비스업	7	(0.4)	1	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0.4)	4	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1)	1	0

(주) ()안은 구성비(%)

- (기준시점) 11월말 (매년 작업 시 전년도 기준 통계 작성)

□ 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시의성 검토

- (기초자료) 개별 기업의 공시자료인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¹⁾를 DB화하여 서비스하는 NICE평가정보(주)의 KIS-DATA²⁾를 기초자료로 사용
- (시의성) 상장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재무제표의 공시를 완료하며, 이를 반영한 KIS-DATA의 가용시기는 5~6월 경으로서 조사시점과 분석대상 연도 간 시차는 1년 미만임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 기초자료의 포괄성,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 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자료는 KIS-DATA를 통해 수집 가능하며, 기업 공시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누락이 없도록 함
- 수집한 기초자료(KIS-DATA)는 지표 산출에 투입 전 오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성 확보
 - 기업별 자료의 주요 항목(매출액, 종업원수, 인건비)에 대해 전년 대비 변화폭을 산출하여 일정 범위(±100%)를 벗어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³⁾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직접 열람하여 자료 확인 및 오류 검증
- 통계 성격 상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계지표의 타당성 제고
 - (제외기업) ① 관리대상 기업, ②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기업, ③ 비금융지주회사, ④ 통계작성연도 기준 3년 이내 신규로 상장된 기업, ⑤ 인수합병·사업분할 등으로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결산월 변경 등으로 인해 재무자료의 시계열 비교가 무의미한 기업, ⑥ 신규 설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최근 4개년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투입자료 이용 시 문제점 및 한계점

- 조사대상 기업의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발생
 - 분석대상 기간의 재무자료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및 결산월 변경, 상장폐지, 관리대상기업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분석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와 시계열상의 단층이 존재함

1)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 지배회사인 기업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초자료로 함

2) 개별 기업의 공시 자료를 직접 조사, 입력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NICE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DB를 구매하여 이용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참고

- 기업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일부 지표의 산출(부가가치 측정) 방식 변화가 불가피
 - (공시규정 변경) 2005년 이전에 작성된 통계에서 기업별 부가가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총생산가치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여 왔음. 그러나 2005년 1월 이후 공시규정의 개정⁴⁾으로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 기재된 부가가치 관련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측정 방식을 변경함
 - (회계기준의 변경) 상장기업이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재무제표에서는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의 재무제표에서 명시적으로 공시해온 ‘부가가치 관련 항목’ 부분이 생략되었고 따라서 신설된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을 통해 부가가치 관련 자료의 선별적 수집이 필요해짐. 즉, 2012년 조사시점부터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 중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2015년 조사시점부터 적용한 총부가가치 기준의 부가가치 산정 시에는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항목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음. 2020년 조사시점부터 한국은행 통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임차료는 제외하고, 대손상각비를 주석항목을 통해 수집하여 사용함.

3. 주요 개념 및 용어

□ 부가가치

- (개념)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을 통하여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포함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분
- (측정방법)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에서는 2020년 조사시점부터 총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함
 - 부가가치 = 영업이익 + 노동소득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

□ 부가가치 창출지표

- 부가가치의 창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1인당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1인당 매출액, 노동장비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등으로 구성
 -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부가가치생산성)]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주로 사용됨.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이나 자본의 활용 등을 통해서 동일한 노동투입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

4) 2005. 1월 금융감독위원회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전반의 성장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

-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 × 1인당 매출액

- [부가가치율] 일정 기간 동안에 창출된 부가가치를 동 기간 중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분배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times 100$

- [1인당 매출액] 1인당 매출액은 매출액을 종업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액의 증가가 종업원의 증가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기업의 경영실적이 양호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 1인당매출액 = $\frac{\text{매출액}}{\text{종업원수}}$

- [노동장비율] 노동장비율은 종업원 1인당 설비자산의 보유수준을 의미함. 즉 생산과정에 있어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경영이 현대화할수록 노동집약적인 경영방식으로부터 자본집약적인 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지표를 통하여 기업경영방식의 현대화 정도를 알 수 있음

- 노동장비율 = $\frac{\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text{종업원수}}$

-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영에 투하된 자본(특히 고정자본)의 효율적 이용도인 자본생산성을 의미함. 이 비율은 당기의 부가가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비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노동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음. 한편 총자본투자효율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회전율의 곱으로도 분해됨

- 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 \times 100$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times 100$
 $= \text{부가가치율} \times \text{총자본회전율}$

- [설비투자효율(설비생산성)]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투자(건설 중인 자산을 차감한 유형자산)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생산성의 보조지표로 이용됨.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설비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

되고 있음을 뜻하며, 특히 ‘설비투자효율 × 노동장비율 = 노동생산성’이므로 노동생산성 변동요인의 분석에서도 주요 지표로 이용됨

$$\bullet \text{ 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times 100$$

□ 부가가치 분배지표

○ 부가가치의 분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노동분배율, 자본분배율, 1인당 노동소득(명목/실질) 등으로 구성

- [노동분배율] 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부가가치 중에서 임원 및 종업원의 임금으로 분배된 노동소득의 비율로 계산됨. 부가가치의 증가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절대적인 분배는 증가하더라도 상대적 분배는 저하될 수 있음. 종업원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제고시키거나 시장에서의 가격지배를 통하여 제품가격을 임금인상보다 높게 올린다면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저하됨. 또한 일반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는 노동분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임금상승을 노동생산성 상승의 범위로 국한시키는 소득정책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노동분배율은 고정화됨.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은 기계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동분배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은 자본집약도, 노동장비율이 높아 노동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bullet \text{ 노동분배율} = \frac{\text{노동소득}}{\text{요소비용부가가치}^*} \times 100$$

* 요소비용부가가치 :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 즉 영업이익과 노동소득의 합

- [자본분배율] 자본분배율은 요소비용부가가치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자본에 대한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임. 자본분배율은 노동분배율과 함께 기업의 분배관계를 나타내며 서로 보수관계에 있음

$$\bullet \text{ 자본분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요소비용부가가치}} \times 100$$

$$\bullet \text{ 노동분배율} + \text{자본분배율} = 100$$

- [1인당 명목노동소득] 1인당 명목노동소득은 노동소득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으로 물가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bullet \text{ 1인당 명목노동소득} = \frac{\text{노동소득}}{\text{종업원수}}$$

- [1인당 실질노동소득] 1인당 실질노동소득은 명목노동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서,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을 나타냄

- 1인당 실질노동소득 = $\frac{1인당\ 명목노동소득}{소비자물가지수}$

□ 성장성 지표

○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자본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으로 구성

- [총자본증가율] 총자본증가율은 기업에 투자, 운용된 총자본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임

- 총자본증가율 = $\frac{당기말총자본 - 전기말총자본}{전기말총자본} \times 100$

- [유형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은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에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유형자산증가율 = $\frac{당기말유형자산 - 전기말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 \times 100$

- [자기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은 자기자본이 당해 연도에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자기자본증가율 = $\frac{당기말자기자본 - 전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 \times 100$

-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 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됨

- 매출액증가율 = $\frac{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times 100$

□ 수익성 지표

○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 경영자본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으로 구성

-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과 총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비율임. 총자본순이익률은 투자수익률이라고도 하며 간단히 ROI(Return on Investment)라는 용어로 많이 쓰임. 이 비율은 당기순이익과 총자본 간의 대응관계가 크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자본운용효율을 표시하는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함. 지표 비교 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종 및 자본 구조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총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총자본영업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은 자본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냈는가를 표시하는 비율임. 즉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능률, 효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비율임

- 총자본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 [경영자본영업이익률] 기업에 투하된 자본은 경영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과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영자본영업이익률은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고 경영활동에 직접 투하된 경영자본과 경영활동의 운용결과인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성적의 양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지표임

- 경영자본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경영자본}} \times 100$

- [자기자본영업이익률] 자기자본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됨. 이 비율은 자기자본을 100이라 할 때 자기자본에 귀속할 영업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어 주는 비율이므로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더불어 경영자, 투자자는 물론 여신자에게도 중요한 비율임

- 자기자본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이 제조 및 판매활동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대비한 판매마진을 나타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임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비용관련 지표

- 비용 지출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인건비비율, 매출원가율, 판매비와관리비율, 이자보상비율, 총이자부담률 등으로 구성

- [인건비비율] 인건비비율은 당기의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인건비 비율은 기업의 노동과 자본 간의 결합을 결정하는 기술상황, 업종 및 자본 구조, 그 외 다양한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함

- 인건비비율 = $\frac{\text{인건비}}{\text{매출액}} \times 100$
- [매출원가율] 매출원가율은 매출원가와 매출액의 비율로서 당기의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이 비율은 매출총이익률과 포리의 관계가 있으므로 이 비율이 낮아야 기업 이익이 커질 수가 있음
- 매출원가율 = $\frac{\text{매출원가}}{\text{매출액}} \times 100$
- [판매비와관리비율] 판매비와관리비율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기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당기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임
- 판매비와관리비율 = $\frac{\text{판매비와 관리비}}{\text{매출액}} \times 100$
-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임. 즉, 이자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져오는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 비율이 낮으면 영업이익에 비하여 금융비용의 압박이 크다는 것을 뜻함
-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 [총이자부담률]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부채가 있음. 총이자부담률은 금융비용과 부채의 비율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을 말함. 여기서 금융비용이란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회사채이자 포함)을 말함
- 총이자부담률 = $\frac{\text{이자비용}}{\text{부채}} \times 100$

□ 안정성 지표

-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등으로 구성
-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여신취급 시 수신자의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며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함.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기업의 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판단함. 이는 유동자산(특히 재고자산)의 가격변동의 위험, 기업의 파산, 기업자금의 과대계상 등에 대비하여 유동자산의 평가를 절반으로 함으로써 여신자로서는 보다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임. 유동비율은 일정시점에서의 재고자산, 당좌자산 등의 유동자산

과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를 대비시킨 것이므로 기업청산 시의 단기 지급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기업의 계속성을 고려해 오히려 지급능력보다는 경영 상태의 양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비수익성 자산인 유동자산이 너무 많은 상태임을 의미하므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당좌비율]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지표임.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가운데 가장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매각 처리 시에도 손실의 위험이 가장 높음. 따라서 기업의 단기부채 지급능력을 판단할 때 재고자산의 처분 없이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당좌비율은 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지표임

- 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정적 개념임. 즉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타인자본은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을 포함하며, 자기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됨. 부채(타인자본)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함.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자율만 낮다면 기업경영에서 부채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향상도 가능함

- 부채비율 = $\frac{\text{타인자본}}{\text{자기자본}} \times 100$

- [고정비율] 고정비율은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얼마나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고정적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안정적이므로 고정비율은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봄

- 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 [고정장기적합률] 고정장기적합률은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함에 있어 고정비율의 보조지표로 사용됨. 거액의 설비자본 투자가 필요한 경우 부족한 자금을 일부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더라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이 비율은 100%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음

- 고정장기적합률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 \text{고정부채}} \times 100$

□ 활동성 지표

○ 기업의 활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총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으로 구성

- [총자본회전율] 총자본회전율은 총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본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임

$$\bullet \text{ 총자본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본}}$$

- [경영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경영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영업활동에 직접 투입, 활용되고 있는 경영자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임.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으며 1회전 이상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경영자본회전율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된 자본이 균형 있게 분배되고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함

$$\bullet \text{ 경영자본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경영자본}}$$

- [고정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고정자산(비유동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몇 번 회전했는지, 즉 고정자산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이 지표는 자본의 고정화 상태를 판단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유동성 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자본의 이용률이 높아지면 고정자산이 경영활동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수익성 및 활동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고정자산에 관련되는 고정비(감가상각비, 금리, 보험료, 수선비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기업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것임. 반면 이 회전율이 낮을 때에는 설비이용의 비능률, 고정자산에 대한 과다 투자를 의미하게 되며, 이는 곧 기업 활동성의 저하와 기업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함

$$\bullet \text{ 고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고정자산}}$$

-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고자산이 일정기간에 몇 번이나 당좌자산(현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측정함. 이 비율이 낮으면 매출액에 비해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높으면 적은 재고자산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자본수익성이 높아지고 매입채무가 감소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을 막고 보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영에 유리함. 반면 이 비율이 낮아지면 재고자산에 대한 투자의 과다현상으로 자본수익률이 낮아지고 매입채무가 증대되며, 상품의 재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보관유지비, 보험료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함. 즉,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을수록 자본구속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현금화속도는 늦어져 결국 재무유동성은 질적으로 저하되게 됨

- 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 매출채권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 이익잉여금처분 지표

-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배당성향, 배당률, 자기자본배당률, 사내유보율 등으로 구성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어느 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외 배당률이라고 함. 기업의 배당률만으로는 배당지급능력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률의 보조지표로 이용됨
 - 배당성향 = $\frac{\text{배당금}}{\text{당기순이익}} \times 100$
 - [배당률] 배당률은 납입자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 비율은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투자결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음
 - 배당률 = $\frac{\text{배당금}}{\text{자본금}} \times 100$
 - [자기자본배당률] 자기자본배당률은 배당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배당성향, 배당률 등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사용되고 있음
 - 자기자본배당률 = $\frac{\text{배당금}}{\text{자기자본}} \times 100$
 - [사내유보율] 사내유보율은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에서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는 비율로 당기에 이룩한 경영성과 중에서 사내 유보된 비율을 나타내는 유량(flow) 개념의 지표임
 - 사내유보율 = $\frac{\text{사내유보}^*}{\text{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 \text{임의적립금이입액}} \times 100$
 - * 사내유보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과의 비교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과 일부 지표 비교 가능

- 총 41개 지표 중 24개 지표 비교 가능
- 분석대상의 차이로 인해 지표 수준 비교보다는 변화 추이의 비교가 유의미

	상장기업 부가가치분석 (한국생산성본부)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가가치 창출지표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 분배지표	노동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성장성	총자본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총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비용관련 지표	인건비비율 매출원가율 이자보상비율 총이자부담률	인건비대매출액 매출원가대매출액 이자보상비율 금융비용대부채
안정성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비유동비율 비유동장기적합률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회전율 경영자산회전율 비유동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4. 적용 분류체계

□ 통계작성의 적용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

- (부가가치의 측정) 기업별 부가가치는 노동생산성지수 등 거시 생산성 통계에서 사용하는 「국민계정」 부가가치의 개념에 기초하여 측정
 - 국민계정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 정의되고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함
 - 국민계정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공제) 등이며, 이 중 영업잉여는 이자, 임료, 기타 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 소득

- 기업회계기준과 국민계정 작성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가가치 구성항목을 정확히 일치 시키기는 어려움
- (산업분류) 산업별 통계지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집계하여 작성하고, 기업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지표 집계 및 작성

5. 통계개편의 적절성

□ 부가가치 계산 방법의 변화

- 기업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일부 기초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부가가치 측정 방식에도 변화 발생
- (2005년 이전) 기업별 부가가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이용하여 총생산가치에서 외부구입가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측정(감가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 순부가가치 개념)
- (2005년~2014년) 2005년 1월 이후 공시규정의 개정⁵⁾으로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의 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 기재된 부가가치 관련 항목 중 인건비를 영업이익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측정 방식을 변경함(2011년 이후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재무제표에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을 통해 부가가치 관련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 가능)
- (2015년~2019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계정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시키기 위해 임차료, 세금과공과 등을 포함함으로써 여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와의 비교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020년 이후) 한국은행 통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임차료는 제외하고, 대손상각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측정

조사 시점	부가가치 산출 방식
2005년 이전	• 부가가치 = 매출액 - { (원재료비 + 지불경비 + 감가상각비)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부가가치조정액
2005 ~ 2014년	• 부가가치 = 영업이익 + 노동소득
2015 ~ 2019년	• 부가가치 = 영업이익 + 노동소득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세금과공과
2020년 이후	• 부가가치 = 영업이익 + 노동소득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

5) 2005. 1월 금융감독위원회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IV. 자료수집

1. 수집자료

□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목록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통계는 가공통계로서 NICE평가정보의 KIS-DATA를 주로 이용하며 그 외에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 등도 활용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 KIS-DATA	연간	NICE평가정보(주)	DB	익년 8월경
■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수시	금융감독원	시스템등재	수시

□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개별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자료 등을 DB화한 『KIS-DATA』(NICE평가정보(주))를 기초자료로 사용
- 부가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종업원 수
 - 개별 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및 별첨 재무제표에서 부가가치 관련 항목 및 종업원수 확인 가능

자료명	자료수집 방법	작성주기	작성형태
영업이익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매년	외부 공시된 보고자료
노동소득	재무제표 주석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 중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항목 집계치)		
감가상각비	재무제표 주석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에서 수집		
임차료			
세금과공과			
종업원 수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의 현황'에서 수집		

- 그 외 자산, 부채, 자본항목 등의 기업 재무자료
 - 개별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통해 해당 계정항목 수집 가능

자료명	자료수집 방법	작성주기	작성형태
매출액	손익계산서 내 해당 항목	매년	외부 공시된 보고자료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재무상태표 내 해당 항목		
유형자산			
총자본			
타인자본			
유동자산			
당좌좌산			
고정자산			
채고자산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 내 해당 항목		
이자비용			
부채	재무상태표 내 해당 항목		
유동부채			
고정부채			
매출채권			
배당금	현금흐름표 내 해당 항목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 해당 항목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수집자료의 한계점

- 불성실한 공시 기업의 존재
 - 수집된 자료는 전적으로 개별 기업이 공시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예: 종업원수 갱신작업 누락 등)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움
-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업종별 성과 구분이 불가능
 - 재무제표는 기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집계한 자료로서 세부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註釋)사항으로 별도 기재하기도 하나 소수에 그침)
 - 따라서 이종 업종에 속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전체 성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업종의 성과로 산입되므로, 업종별 집계 지표 작성 결과 현실과 다소간의 괴리 발생 가능

2. 자료수집체계

□ 기업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매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기업정보 서비스업체(NICE평가정보)와 매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재무자료 DB(KIS-DATA) 입수
 - 재무제표 일반계정 항목자료: 매년 5월 입수
 - 재무제표 주식사항: 매년 7~8월경 입수

3. 수집자료 처리

□ 수집자료 처리과정 및 내검

- 수집되는 기초자료(KIS-DATA)는 자료 성격별로 구분된 대용량 텍스트 파일 형태로서 기업별 및 연도별 통합 작업이 필요
 - 통합 대상 파일: 업체개요, 종업원현황, 재무제표 일반계정, 재무제표 주식항목
 - 통계처리 프로그램(R) 활용

<기초자료 통합 과정>

- ① 2015년 KIS-DATA의 업체개요 파일 읽어오기
 - : 분석대상 상장기업 목록 확인 가능
- ② 종업원현황 파일에서 기업별 연말 종업원수 추출
 - : 상장기업 중 최근 4개년 종업원수 자료 누락 기업 확인
- ③ 엑셀파일 형태로 별도 수령한 재무제표 주식(부가가치 관련 항목) 파일 통합
- ④ 재무제표 일반계정 파일에서 결산 재무자료 추출 후 업체개요 데이터와 병합
- ⑤ 위 각 단계별로 산출된 데이터를 기업구분 코드, 연도 기준으로 병합
 - : 부가가치 관련항목 중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경우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누락되는 경우 차순위 자료 사용
 - * 인건비: (1순위) 재무제표 주식(비용의 성격별 분류) 인건비
(2순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상 인건비 합계
 - * 임차료: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상 임차료 합계
 - * 세금과공과: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상 세금과공과 합계
 - * 감가상각비: (1순위) K-IFRS 주식(비용의 성격별 분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
(2순위)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비
(3순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비 합계

○ 오류 검증: 조사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자료 오류 수정

- (조사대상 제외기업) ① 관리대상 기업, ②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기업, ③ 비금융지주회사, ④ 통계작성연도 기준 3년 이내 신규로 상장된 기업, ⑤ 인수합병·사업분할 등으로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결산월 변경 등으로 인해 재무자료의 시계열 비교가 무의미한 기업, ⑥ 신규 설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최근 4개년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대상 제외 사유 중 ⑤, ⑥에 해당하는 기업은 오류검증 과정을 통해 확인

<1차 오류 검증 작업>

- 분석대상 기간 중 결산월이 변경된 기업 확인 및 제외
- 종업원수, 매출액, 인건비의 분석기간 중 전년대비 변화율이 큰($\pm 100\%$) 기업 추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오류 발견 시 수정
 - 재무제표 주석사항, 사업보고서 상 회사연혁을 참고하여, 분석대상 기간 중 합병 등 중요한 사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주로 종업원 수 변화가 큰 기업의 경우 합병 해당 사례 다수

<2차 오류 검증 작업>

- 분석기간 내 주요 지표(1인당부가가치, 1인당매출액, 총자본증가율 등)의 변화가 특히 크게 나타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직접 열람하여 2차 검증을 실시
 - 합병/분할 등 중요한 사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재무자료 결측 항목의 처리

- 특정 재무계정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 자료가 결측치(missing value)인 경우는 공시의무가 없는 항목일 수 있으므로 해당 결측치를 0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반면 대부분의 기업에 자료가 존재하는 항목인 경우 일부 기업의 결측치는 0으로 간주

V.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 자료수집 및 가공과정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지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는 매년 5~8월 기업자료 DB(KIS-DATA)로 수집
- 자료 성격별로 분리된 파일을 기업별, 연도별로 통합하여 통계지표 산출용 기초자료 형태로 구축
- 오류 검증 과정을 통해 조사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및 자료 오류 수정
- 통계처리 프로그램(R)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지표, 부가가치 분배지표,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비용관련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 이익잉여금처분 관련 지표 등 산출
- 지표 산출 후 이상치 점검 및 처리
 - 수준 값의 부호가 바뀌거나 음수(-)인 경우 증가율의 처리
: 지표 수준 값이 '-' 에서 '+'로 전환된 경우 증가율은 '+'로, '+'에서 '-'로 전환된 경우 증가율은 '-'로 표기. '-'에서 '-'로 전환된 경우 증가율은 '계산불능(n.a; not available)'으로 표기
 - 기업별 지표 중 자료 누락으로 인해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결측 처리
(예) 배당금 자료 누락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처분 관련지표 다수 결측 처리됨

□ 산출하는 주요 통계 목록

- 부가가치 창출지표
 -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부가가치율, 1인당 매출액, 자본집약도, 노동장비율,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 설비투자효율 등
- 부가가치 분배지표
 - 노동분배율, 자본분배율, 1인당명목노동소득, 1인당실질노동소득 등
- 성장성 지표
 - 총자본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
- 수익성 지표
 -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영업이익률, 경영자본영업이익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 비용관련 지표

- 인건비비율, 매출원가율, 판매비와일반관리비율, 이자보상비율, 총이자부담률 등

○ 안정성 지표

-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등

○ 활동성 지표

- 총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등

○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지표

- 배당성향, 배당률, 자기자본배당률, 사내유보율 등

□ 주요 통계 작성결과('24년 결과 예시)

○ 2023년 전(全)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지표 동향

-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는 1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9% 감소함

* 전년대비 종업원수는 1.3% 증가, 부가가치 14.8% 감소

- (1인당 매출액) 1인당 매출액은 1,0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함

* 노동투입(종업원수)는 1.3% 증가, 매출액은 2.5% 감소

- (설비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은 31.5%로 전년보다 6.9%p 하락

* 부가가치 증가율(-14.8%)이 기업경영여에서 사용된 유형자산 증가율(3.7%)보다 하회

- (총자본투자효율) 총자본투자효율은 9.2%로 전년대비 2.2%p 하락

* 부가가치 증가율(-14.8%)이 총자본 증가율(5.9%) 보다 하회

(표) 전(全)산업 생산성 지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준	증가율	수 준	증가율	수 준	증가율
부가가치(조원)	265	19.0	237	-10.4	202	-14.8
종업원수(천명)	1,422	0.6	1,450	2.0	1,469	1.3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86	18.3	164	-12.1	138	-15.9
매출액(조원)	1,425	16.7	1,629	14.3	1,588	-2.5
1인당 매출액(백만원)	1,002	16.0	1,123	12.1	1,081	-3.8
유형자산(조원)	593	3.7	618	4.2	641	3.7
설비투자효율(% , %p)	44.6	5.7	38.4	-6.2	31.5	-6.9
총자본(조원)	1,907	7.6	2,074	8.8	2,196	5.9
총자본투자효율(% , %p)	13.9	1.4	11.4	-2.5	9.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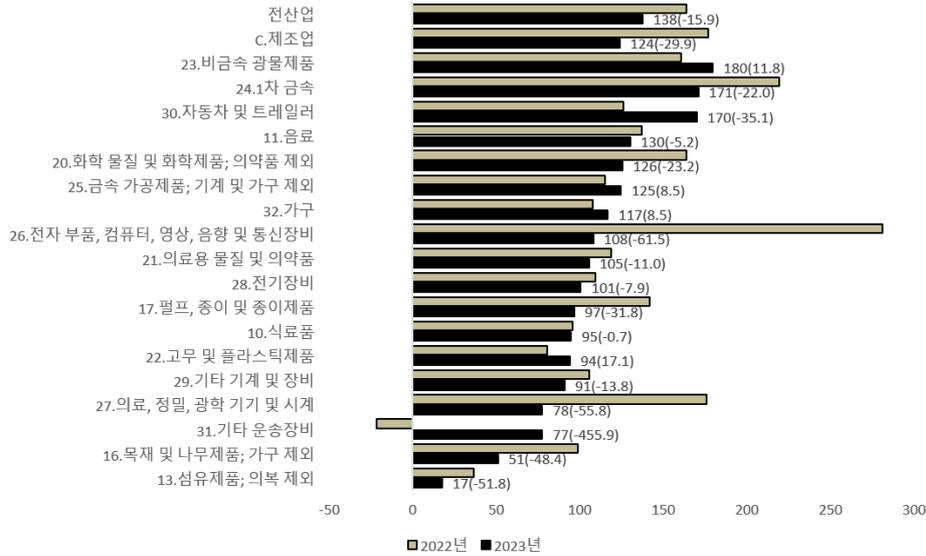
(주1) 부가가치는 영업이익, 노동소득,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의 합으로 측정

(주2) 증가율의 단위는 '%'(단, 설비투자효율,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 증가분(%p))

(주3) 유형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을 차감한 값임

(그림) 제조업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22년→`23년)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



(주1) 표시된 수치는 각 업종의 '23년 1인당 부가가치와 '22년 대비 증가율

(주2) 분석대상 기업 개수가 5개 미만인 업종은 제외

○ 제조업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그림)

-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2023년 1인당 부가가치는 비금속 광물제품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섬유제품 업종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비금속 광물제품(180백만원), 1차 금속(171백만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170백만원), 음료(130백만원),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126백만원) 순으로 높은 1인당 부가가치를 기록

2. 결과의 적절성

□ 최종 산출통계에 대한 검증

○ 전년도 조사와 중복되는 분석년도의 지표 추이 동일성 확인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조사는 매년 최근 3개년 지표를 작성하고 있어 직전 년도 조사와는 동일한 2개년에 대해 지표 비교 가능
- 조사대상 기업의 변동으로 지표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남

○ 국내 유사 통계와의 비교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동일 지표 결과 비교 가능
-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전체 영리법인을 포괄하고 있어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결과와 수치 상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남

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공표수준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제조업 중분류별), 기업별 통계자료 공표

공표의 적정성

- 순수 가공통계이므로 표집오차 등은 해당 없으며, 보고서에 통계 설명자료와 결과를 기술하고 있음

주요 통계표

- 주요 통계표

	전산업		
	2021	2022	2023
I. 부가가치 창출지표			
1. 1인당부가가치 (백만원)	186.21	163.63	137.55
2. 1인당부가가치 증가율	18.31	-12.13	-15.94
3. 부가가치율	18.58	14.57	12.73
4. 1인당매출액 (백만원)	1,002.10	1,123.35	1,080.67
5. 1인당매출액증가율	16.00	12.10	-3.80
6. 자본집약도 (백만원)	1,341.55	1,430.31	1,495.01
7. 노동장비율 (백만원)	417.31	426.35	436.51
8. 총자본투자효율	13.88	11.44	9.20
9. 설비투자효율	44.62	38.38	31.51
II. 부가가치 분배지표			
1. 노동분배율	38.25	46.70	63.31
2. 자본분배율	61.75	53.30	36.69
3. 1인당명목노동소득(백만원)	46.69	45.08	43.93
4. 1인당실질노동소득(백만원)	45.55	41.85	39.37
III. 성장성지표			
1. 총자본증가율	10.47	7.20	4.71
2. 유형자산증가율	5.06	6.82	4.71
3. 자기자본증가율	8.31	3.87	4.95
4. 매출액증가율	16.72	14.34	-2.53
IV. 수익성지표			
1. 총자본순이익률	4.84	2.92	3.12
2. 총자본영업이익률	5.62	3.60	1.70
3. 경영자본영업이익률	8.07	5.18	2.48
4. 자기자본영업이익률	9.79	6.43	3.09
5. 매출액영업이익률	7.52	4.58	2.36
V. 비용관련지표			
1. 인건비비율	4.66	4.01	4.06
2. 매출원가율	77.15	80.99	82.52

3. 판매비와일반관리비율	15.33	14.43	15.13
4. 이자보상비율	997.59	513.92	170.55
5. 총이자부담률	1.32	1.59	2.23
VI. 안정성지표			
1. 유동비율	126.61	117.65	115.79
2. 당좌비율	101.16	89.04	88.49
3. 부채비율	75.81	81.43	81.01
4. 고정비율	19.17	19.87	19.35
5. 고정장기적합률	14.76	15.19	14.70
VII. 활동성지표			
1. 총자본회전율 (회)	0.75	0.79	0.72
2. 경영자본회전율(회)	1.07	1.13	1.05
3. 고정자산회전율(회)	6.76	7.19	6.68
4. 재고자산회전율(회)	11.84	10.71	9.38
5. 매출채권회전율(회)	7.88	8.18	7.92
VIII. 이익잉여금처분			
1. 배당성향	21.37	31.61	27.84
2. 배당률	24.00	22.84	22.10
3. 자기자본배당률	1.80	1.65	1.58
4. 사내유보율	93.98	94.20	96.81

□ 통계표 이용 시 유의사항

○ 총괄분석

- 전(全)산업 및 업종별 분석에는 재무항목별로 각 기업의 자료를 집계, 합산한 다음 산출한 지표를 활용함. 즉 개별기업의 조사내용을 합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종 비율을 계산하는 ROS(Ratio of Summation)방식으로 분석지표를 산출함

○ 세목과 그 합계의 불일치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조사대상 기업의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

- 분석대상 기간의 재무자료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및 결산월 변경, 상장 폐지, 관리대상기업으로의 편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분석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와 시계열상의 단층이 존재함

○ 기업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 측정 방식 변화

- 2005. 1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의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공제법 방식의 부가가치 측정이 불가능해짐. 이를 대체하여 부가가치를 영업이익과 노동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노동소득은 재무제표 주식(부가가치관련 항목)에서 수집함
- 2011년 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됨. 2012년 조사시점부터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성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주식에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 내에 제시된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조사시점부터는 부가가치 산정을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영업이익과 노동소득에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임차료를 합산하여 측정하였으며, 2020년 조사시점부터 한국은행 통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임차료는 제외하고, 대손상각비를 주식항목을 통해 수집하여 측정함

○ 평균 종업원 수의 사용

- 종업원 수(임원 포함)는 기초와 기말 종업원 수를 평균하여 사용함.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임시 및 일용직이 많은데 일부기업에서는 이들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시 및 일용직이 종업원 수로 집계되지 않아 건설업의 종업원 수가 타 산업에 비해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장비율, 1인당 매출액, 1인당 명목(실질)노동소득 등이 과대 계상될 수 있음

○ 자산, 부채, 자본항목의 기초, 기말 평균치 사용

- 기업의 경영성과는 자산, 부채, 자본을 운용한 결과이므로 분석지표의 산출 시 재무상태표 상의 아래 항목에는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음
 - ① 생산성·활동성·수익성 지표의 자산, 부채, 자본항목
 - ② 총이자부담률의 부채, 배당률·자기자본배당률의 자본항목

○ 계산불능지표

- 부가가치분석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계산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음.
 - ① 수준 값이 ‘-’ 에서 ‘+’로 전환된 경우에는 증가율을 ‘+’로 표기하고, ‘+’에서 ‘-’로 전환된 경우에는 증가율을 ‘-’로 표기하였으며, ‘-’에서 ‘-’로 전환된 경우에는‘n.a(not available)’로 표기하였음.
 - ② 분석지표가 계산 불능인 경우 결측치로 간주하여‘.’으로 표기하였음.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

본 조사에서 부가가치는 영업이익, 노동소득, 감가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의 합으로 계산한다. 이 중 노동소득 항목은 2012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집계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과 비교할 때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동소득 항목의 산정방식 차이를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노동소득**: K-IFRS에서는 재무제표 주식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을 통해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항목별 집계치가 제공됨. 이들 계정항목을 합산하여 노동소득으로 집계

※ K-IFRS와 K-GAAP은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K-IFRS 부가가치 항목이 K-GAAP 부가가치와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 K-GAAP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회계연도 말 전직원 일시 퇴직을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text{퇴직급여(K-GAAP)} = \text{당기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text{전기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text{당기 퇴직금 지급액}$$

○ 한편 K-IFRS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평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관한 정보(임금상승률, 퇴직률)를 토대로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출된 예상 퇴직급여 중 평가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text{퇴직급여(K-IFRS)} = \text{당기근무원가} + \text{이자비용} - \text{기대수익} \pm \text{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수리적 손익}$$

(이 때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 ‘이자비용’은 퇴직급여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한 기간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증가액, ‘기대수익’은 회계기간 초에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보험수리적 손익’은 회계기간 말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평가한 후 기초에 예상한 금액과 기말 실제 금액과의 차이)

○ 따라서, K-IFRS에서 사용하는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인 미래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의 차이에 따라 확정급여채무가 현행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시점과 공표시기

통계 작성시점 및 공표시기

- 최근 3년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지표를 익년 9~11월 작성, 익년 11월 말 공표

2-2 공표일정

통계 공표일정 및 공개방법

- 매년 초 작성하는 국가 생산성 관련 사업계획서에 공표일정을 명시(산업통상자원부 제출)
-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통계 공표일정 공지 예정

최근 공개된 공표일정 및 실제 공표시기

- 최근 공표일정: 2024년 11월말(2024년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 실제 공표일: 2024년 11월 30일(예정과 실제 공표일 일치)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작성방법의 비교성

- 기업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부가가치 측정 방식이 일부 변경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 지표 작성방법은 매년 동일함

3-2 시계열 비교성

시계열 단절 있음

- 매년 조사대상 기업의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시계열 단절 발생
 - 상장기업 중 결산월 변경, 상장폐지, 관리대상기업으로의 편입, 합병/분할 등 중요한 사업상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발생
- 기초자료인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변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발생
 - 2011년 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재무제표 계정항목의 작성 기준에 차이가 존재
- 시계열 단절의 발생요인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I.조사개요 - 7.통계 이용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설

3-3 국가간 비교성

□ 외국의 동일 목적 통계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분석 지표를 작성한 해외통계 미 파악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국내 유사 및 관련 통계와 비교

- 관련 통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조사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대상: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의 성격상 작성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함
 - 조사방법: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각 법인의 조사년도 법인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기업경영분석 편제대상 업종별로 분류, 집계하여 재무비율을 산출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과의 비교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조사대상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주)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영리법인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기초자료	NICE평가정보 ^(주) 의 KIS-DATA	국세청법인세 신고서류로 첨부된 재무제표
제공통계범위	산업/기업별 노동생산성 및 재무비율 지표	산업/기업규모별, 집계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조사주기	연 1회	연 1회

(주) 관리대상 기업,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기업, 비금융지주회사, 신규 상장 기업, 인수합병 등 주요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결산월 변경 등으로 인해 재무자료의 시계열 비교가 무의미한 기업, 신규 설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최근 4개년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및 제공자료 유형

-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보고서, 통계DB
 - <https://stat.kpc.or.kr/>
 - 생산성 > 생산성 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생산성 > 생산성 연구·통계 > 생산성 통계DB > 기업별/업종별 부가가치분석 지표
- KOSIS(국가통계포털) : 통계(엑셀파일)
 - <http://www.kosis.kr>
 - 주제별통계 > 경기·기업경영(사업체) > 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4-2 연락처 정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 전화번호 : 02-724-1053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통계 설명자료 소재 정보

- 연구보고서(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 [부록] 분석지표에 대한 해설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설명자료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데이터 접근자를 최소화 하여 담당자 이외엔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며 특히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은 담당직원으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비밀보호 조치를 시행

5-2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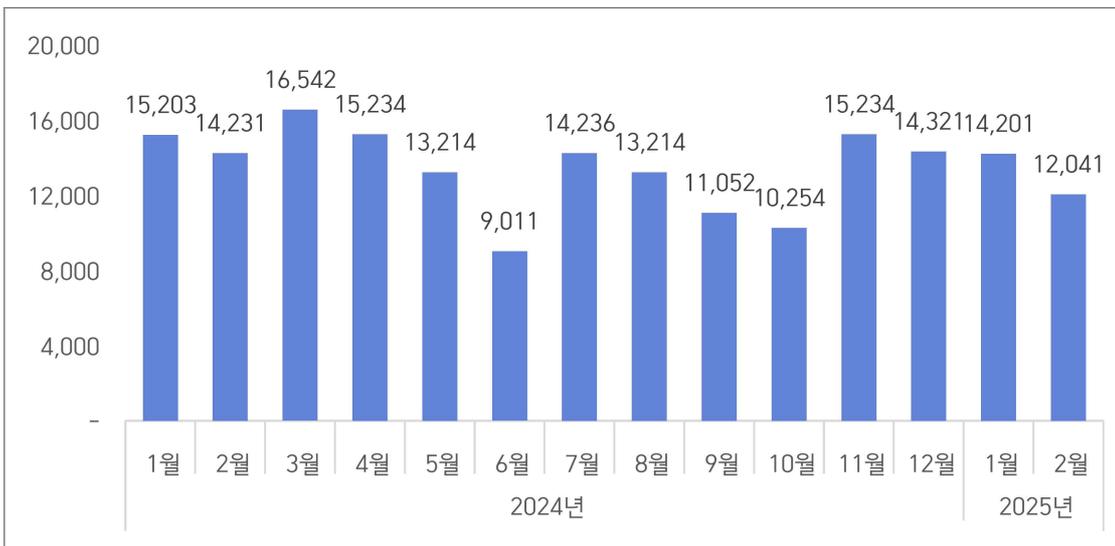
- 기관 내 정기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작업 PC 및 자료 파일(D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담당자 외 접근 방지

6. 통계활용 실태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회수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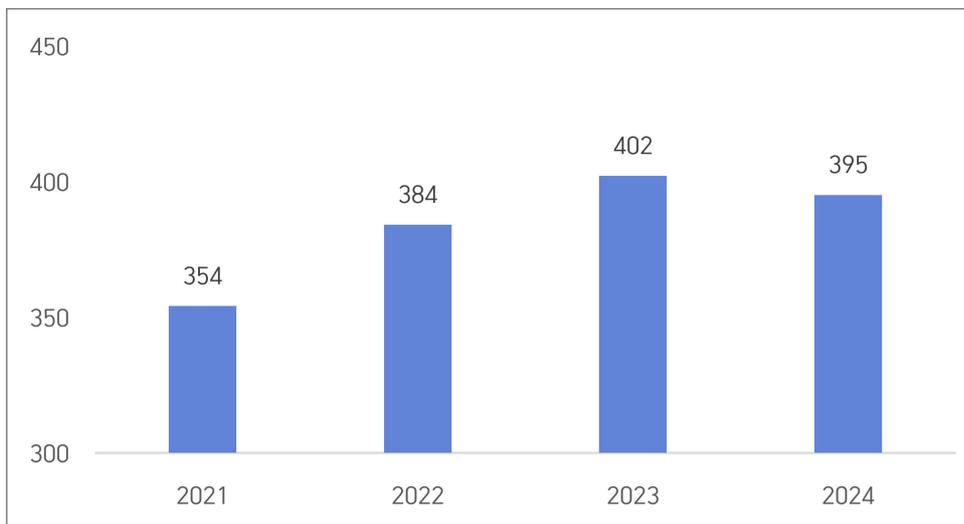
- 생산성 연구·통계 카테고리 접속 클릭 수 통계 추이 (6월 이후부터 조회 가능)

<생산성 연구·통계 카테고리 접속 클릭 수 통계 추이(월별)>



-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보고서 제공 실적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보고서 다운로드 추이(연도별 누적)>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생산성연구센터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	인원수	구체적인 통계업무
전문위원	1명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통계 산출 및 보고서 작성

통계작성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 방법

- 업무 상세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 담당자는 매년 통계 작성전 매뉴얼을 최근 내용으로 업데이트
 - 전·후 담당자간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고 공동서명한 후 결재

외부위탁 또는 용역사업

- 자체 수행

2. 자료처리 시스템

시스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사양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관리
시스템 명칭	PC
운 영 장 비	OS: MS Windows 11 CPU: intel I-7 Memory: 16GB이상 하드디스크: 1,000GB 이상
통계분석패키지	R

Ⅷ. 참고문헌

1. 기타 문헌

□ 해당 통계와 관련된 연구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통계가 수록된 국내외 보고서 등

○ 국내(외)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19), “20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18.11.01.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2019), “반도체 산업현황 및 우려 점검”, 2019. 4
- 김동석(2005),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격차에 관한 실태분석”,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KDI 연구보고서 2005-05) 제4장
-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년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 전망”, 2019. 6
- 중소기업청 (2014), 『2015년 개정판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 한국석유화학협회 발표자료(2019),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2019.06.13.
- 한국은행(201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기여도에 관한 연구”, (BOK 국민계정리뷰 2014-04)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9), “자동차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 한국전력공사 (2019), “제58기 2018 회계연도 결산서”, 2019.04.01.
- 한국투자증권 (2018), “중국 환경 규제 수혜주에 주목”, 2018.03.30
- Aw, B. Y et al.(2001), “Firm-level Evidence on Productivity Differentials and Turnover in Taiwanese Manufacturin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66, no.6235, pp. 51-86
- Baily, Martin N., Eric J. Bartelsman, and John Haltiwanger (1996), “Downsizing and Productivity Growth: Myth or Realit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8, no.4, pp. 259-278